

다산포럼

화성 표류기 ‘마션’, 유머와 연대감의 힘



유지나
동국대 연극영화과 교수·영화평론가

인간 세상이 아프게 다가올 때, 가을 하늘은 큰 위로가 된다. 정아하게 푸른 하늘, 거기 드리워진 변화무쌍한 구름 예술을 보노라면 자연의 묘미를 맛보게 된다. 특히 가을 노을이 보여주는 오묘한 색의 하모니는 미학의 진수를 가르쳐 준다. 작은 별에 살던 어린 왕자가 아주 슬플 때, 의자 위치를 바꿔가며 44번 노을을 보는 이유도 공감하게 된다. 지구 한구석에서 나 역시 슬플 때 노을을 보며 우주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위안을 얻는다. “예술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존재의 공허함에 해

독제를 찾는 것”이라 했던 거트루드 스타인의 명언도 떠오른다.

그래서 가장 리들리 스콧의 ‘마션’이 순식간에 백만 관객을 돌파할 정도로 한국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리라. ‘마션’(The Martian)은 화성인이란 뜻이다.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화성은 ‘제2의 지구’ 대접을 받으며, 수많은 소설·만화·영화에 등장해 왔다. 화요일이란 명칭은 붉은 화성으로부터 유래했고, 태양 빛 따뜻한 3월을 뜻하는 영어 마치(March)도 그 근거가 화성이다. 이렇게 화성은 지구 일상에 친근한 별이다. 일상화된 스마트폰도 애플로계획으로 개발된 컴퓨터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우주과학도 일상과 함께 돌아간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20년 후 가까운 미래로 이동한다. 아레스3 탐사대는 화성 탐사 중 거대한 모래 폭풍을 만나 위기에 처한다. 실종된 마크(맷 데이먼)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탐사대는 지구 귀향길에 오른다. 그러나 극적으로 살아난 마크는 ‘화성인 되기’에 도전한다.

그는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 산소와 물도 만든다. 감자가 싹을 키워 내자, 그는 자신이 화성 최초의 식물학자라며 뽐내기도 하면서 컴퓨터 영상일지를 쓴다. 포기 대신 도전정신으로 살아내는 마크도 외로울 때면 노을을 바라본다. 그는 작막감을 이겨내려 음악을 듣는다.

그런데 대장이 남기고 간 음악은 온통 70년대 디스코뿐이다. “이 디스코 음악만 듣다간 여기서 죽을 거 같아”라는 그의 불평도 관객을 웃게 만든다. 기적적으로 접촉하게 된 대원들과 영상 소통을 할 때도 “놀랐지?”라며 시작하는 그의 유머는(그를 두고 떠난) 대원들의 자책감 넘치는 고통을 치유해 준다.

특히 목숨을 걸고 마크를 구하기 위해 우주 랑데부를 실행하는 루이스 대장의 비장한 모습에서는 ‘에이리언’, ‘델타와 루이스’, ‘지아이 제인’ 등에서 씩씩한 여성을 멋지게 그려온 스킵 감독의 뛰어난 전담 감각이 감지된다. 어떤 난관에서도 유머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마크의 생존술은 루멘스 기질의 위대함을

깨우쳐 준다.

이런 기질은 현실에서 이미 발휘되고 있다. 문 걸어 잠그고 살던 이 땅에 첫발을 디딘 허멜의 나라, 네덜란드 출신 바스 란스도르프는 2011년 비영리 우주벤처업체 ‘마르스 원’(Mars One)을 창업했다. 2033년 화성에 인간 정착을 목표로 내건 이 프로젝트에 20만 2586명이 지원했다. 화성 생활을 지구로 중계하는 리얼리티 쇼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마침 송창식의 노래 ‘푸르른 날’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노래를 따라 부르노라니 나도 화성에 가고픈다는 우주여행의 꿈이 단풍처럼 불타오른다.

그런 마음으로 노을을 보니 대우주가 소유주인 내 몸 접촉하는 찰나의 순간이 저릿하게 다가온다. 슬픔도 그리움도 떠나는 여행의 꿈으로 치유하는 노을과 노래, 그리고 영화 보기의 매혹이 감사한 가을날이다.

NGO 칼럼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 함께 합니다



박주현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지원위원장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국 58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슬로건이다.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항상 등에 업고 다니는 느낌도 든다. 어떻게 하면 피해자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달고 사는 셈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는 범죄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마트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납치 살해당하고, 중간 소음 문제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으로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범죄자가 되는 현실이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길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사례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살인, 강도 등 안타까운 사연이 줄을 잇는다. 이들의 사연을 듣다보면 납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이웃의 누군가가, 혹은 모를 내 가족 중의 누군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상담자와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다반사가 되기도 했다.

우리 주변에는 범죄 피해로 인해 사연을 가진 이들이 많다. 또 그들 중 상당수는 범죄로 인해 가정 생활마저도 힘들어 지기도 한다. 누군가가 휘두른 흉기에 가

장을 잃은 가족도 있고, 누군가가 저지른 방화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병원비를 떠안은 이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비, 치료비, 학비 등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 사실을 밖으로 알리지 못하고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 이전비, 심리치료비, 현장 정리비, 취업활동비 등 경제적 지원 외에도 법정동행, 일손 돕기, 주거환경 개선, 자조 모임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함께 하는 힐링캠프,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사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권리와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근

거로 체포 당시 변호사 선임과 진술거부권 등을 통보하듯, 범죄 피해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회적 약자들은 부모나 배우자 등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특정 사건의 경우에는 가명으로 조사를 작성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강력사건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광주스마일센터가 임시 거주 공간과 심리 상담·치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의 많은 부분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부금으로, 상담자격이 있는 분들은 상담봉사로, 범죄인은 법률 지원으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의료지원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기고

지역상공인과 아웃렛 사이



신재준
전남도 중소기업과장

몇 년 전 우리사회에 인문학 열풍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이 있었다.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나도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샌델 교수가 서술의 모 대학 야외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토론식 강의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모습에 흐뭇해 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정의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정직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세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상공인들의 경제 위축이 예견되어 말 그대로 이럴 수도 저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런가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 붕괴가 주민 편의나 지역 활성화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 맞는 얘기이다.

이해가 되면서도 어렵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전명(知天命)을 넘겨 몇 년 후면 이순(耳順)이 되는 나이로, 쉽지 않은 공직생활을 해 온 나로서도 쉽게 판단할 만큼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이해가 상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만을 큰 소리로 말하기에 익숙하고, 상대방 말을 듣는 것에는 아주 어색하다. 우리사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은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는 일이다. 만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소리만 높인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남의 입장에 듣다보면 때로

는 다투기도 하고, 누그러지기도 하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친구라도 정작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이치와 같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에 전남도청에 시군 관계 공무원과 유통업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결코 좋지도 할테만 모두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공자(孔子)는 ‘올바른 생각으로 사악함이 없음을 사무사(德無邪)라고 했다. 아웃렛 입점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금 당장은 낯설고 다소 힘들더라도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손에는 상생의 모범답안이 마련될 것이다. 가을 초입에서 기본 좋은 상상을 해 본다.

빛가람혁신도시, 품격있는 건축문화 만들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건축문화가 꽃피우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한전 본사 사옥이 ‘201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이어,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15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에서 전력거래소 사옥이 국무총

리상에 해당하는 본상을, 한전KPS 사옥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16개의 이전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조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건설 진행과정 동안 ‘이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

호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었고, 때로는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축 문화 정립에 앞장선 결과 국내 건축분야에서는 손꼽히는 건축대전들에서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협업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의 실천으로 창조경제의 좋은 본보기가 아

닌가 싶다.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어본다면, 공공기관에 이어 지금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주거부분과 민간부분도 영리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탈피하고 빛가람 혁신도시가 추구하는 품격 있는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그린토피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진수·전력거래소 정보보안실 실장

社說

도청이전 10년…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

오는 15일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 신도시로 옮겨가 업무를 시작할 지 10년을 맞는다. 하지만 도청 이전의 효과는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애초 기대했던 서남권 거점도시로의 발돋움은 미진한 데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목표 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청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핵심도시 조성이었지만 결국 ‘인구 돌림막’이 되고 말았다. 도청이 들어서기 전인 2004년 말 880명이 거주하던 신도시로 커졌다. 하지만 늘어난 주민의 62%인 1만8865명은 목포에서, 16%인 4839명은 전남 다른 시·군에서 이사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76곳이 남악에 터를 잡았지만 직원 상당수는 여전히 ‘나홀로’ 상태로 지내고 있다. 자녀 교육 등을 위해 광주에서 출퇴근하며 생활비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도 넘은 공무원들 직무소홀과 기강 해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와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공직비리 등의 이유로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과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전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품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 유용,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지자체가 징계 내용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때 전남도에 부과된 징계부과금이 63억 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징계부과금 체납액 역시 62억 원으로 1위를 보이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징중 군청의 한 사무관 등 공무원들이 한 달에 두 차례나 감찰에 적발돼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K사무관 등 3명은 지난 7월 초투자 유치 업무를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지난 2009년 이후 목포시와 무안군의 연평균 GRDP(지역내총생산)가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고 파악했다. 대형 소매점 매출, 고용 증가율 같은 실물경제 지표도 2000년대 초·중반 상승세를 하락세로 꺾었다. 반면 아파트에는 돈이 몰려 예금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은 급증했다. 불과 5년 만에 이전 효과가 사실상 소멸한 셈이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급선무다.

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확충 등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당장 해남·영암의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활성화되면 인구와 경제 활동 증가로 큰 성장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이러한 사업에 더욱 매진하면서 도청 인접 지역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악지구와 맞닿은 옥암·오룡 지구 택지 개발에도 주력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無 等 鼓

별을 좋아하는 50대 동호인들은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Cosmos)를 꼽는다. 1980년대 초 까까머리 중학생이던 이들은 책과 함께 저자가 진행하는 같은 이름의 TV 다큐멘터리에 심취해 우주를 동경하게 된다. 이 책 5장은 ‘붉은 별의 신비’라는 소재 목으로 화성을 다룬다. 구한말 미국 주한 공사를 지낸 피시벌 로웰은 1894년 애리조나주에 개인 천문대를 세웠다. 그의 관심사는 화성이었다. 그는 1877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스키피아 델리가 발표한 화성 스케치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스키피아 파렐리는 화성 표면에 한 줄기 또는 두 줄기의 선(線)이 서로 엇갈려 복잡한 그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관측하고 ‘카나리’(Canali=이탈리아말로 골짜기나 도랑)라고 불렀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캐널’(Canal=인간이 만든 인공 수로, 운하)로 바뀌어 화성 열풍이 일었다. 로웰은 24인치(직경 60cm) 굴절망원경으로 ‘붉은 행성’을 관측하면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고, 관수(灌漑)용으로 만든 운하가 화성 전체에 그물

처럼 깔려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화성 열풍은 20세기 초기 러시아 치오르코프스키, 미국 고다드와 같은 선구적인 우주로켓 과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행성 탐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요즘 화성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소금물 개천’ 형태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NASA는 오는 2020년 화성 탐사선을 보내 화성 표면에 착륙시킨다는 ‘화성 캐치’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스키피아 파렐리는 화성 표면에 한 줄기 또는 두 줄기의 선(線)이 서로 엇갈려 복잡한 그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관측하고 ‘카나리’(Canali=이탈리아말로 골짜기나 도랑)라고 불렀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캐널’(Canal=인간이 만든 인공 수로, 운하)로 바뀌어 화성 열풍이 일었다. 로웰은 24인치(직경 60cm) 굴절망원경으로 ‘붉은 행성’을 관측하면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고, 관수(灌漑)용으로 만든 운하가 화성 전체에 그물

붉은 행성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광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74)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